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행 2:40~41)

1985년은 저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해(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방학 혹은 겨울방학 기간 중에 일본에 와서 단기선교를 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1985년이 어떤 해인지를 반복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1985년은 선교적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인 그리스도인과 비백인 그리스도인(아시아인, 아프리카인, 라틴 아메리카인)의 비율이 각각 50%가 된 해가 1985년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자료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인 1800년대에는 전세계 그리스도인의 비율 가운데 백인 그리스도인이 99%를 차지하고, 비백인 그리스도인은 불과 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100년이 지난 1900년대가 되면, 백인 그리스도인이 90%가 되고, 비백인 그리스도인이 10%가 됩니다. 그러던 것이 1985년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의 그리스도인 중에 비백인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백인 그리스도인의 비율을 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의 약속대로(창 12:2,3)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심을 깨닫게 만듭니다(참조, 행 3:25).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19,20)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1. 1985년, 그리고 한일교회의 대조

우리 부부의 새로운 임지인 카츠타다이(勝田台教会) 교회에서의 사역이 벌써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역지는 동경이 항상 동쪽이었지만, 현재의 사역지는 동경이 서쪽에 있습니다. 일본으로 파송되어 20년 넘도록 동경은 동쪽이다라고 인식이 되어서 그런지 지금도 한 번씩 방향을 착각하기도 합니다.

카츠타다이 교회에 온 지가 얼마 안되었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일학교 학생수의 큰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1971년에 개척된 카츠타다이 교회의 주일학교의 경우, 1979~1980년의 주일학교 출석자는 90명 전후였고, 1979년 7월 15일에는 107명까지 늘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1980년 12월의 크리스마스 축하모임에는 어린 학생들이 157명이 출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때 카츠타다이 교회는 마이크로버스 2대를 운영하면서 인근의 여러 단지에 있던 학생들을 교회로 모았습니다. 당시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8개의 소학교(초등학교)에 다닐 정도로 정말로 주일학교 붐이 일던 시기였습니다.

마치 지금은 거짓말 처럼 들릴 지 몰라도, 그 때 교회는 한 마디로 주일학교 학생으로 초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카츠타다이 교회만이 아니라 일본 전국의 교회들이 비슷한 부흥의 기쁨과 영광을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한국교회가 경험한 그 놀라운 부흥을 일본교회도 거의 비슷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카츠타다이 교회 전경)



(예배당 내부)

그런데 1985년 전후로 일본교회 주일학교는 급감하게 됩니다. 지역마다 혹은 교회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1980~89년 사이에 거의 대부분의 일본교회 주일학교는 크게 감소하고 맙니다. 주일학교 평균 출석이 70명까지 성장하던 카츠타다이 교회의 주일학교는 1984년에는 40명 전후가 되며, 1986년에는 20명 전후로 떨어지다가 그 후에는 10명 정도로 계약의 자녀들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수가 줄어든 원인 가운데는 상급학교 진학과 주일날에 행해지는 부활동(部活動)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일에 행해지는 각학교의 부활동은 주일학교(중등부, 고등부)의 활동을 방해, 마비시키고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수가 급감한 또 다른 원인으로서는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낸 학부모들을 전도하지 못한 일과 경제대국 일본이 만들어 놓은 여러 다양한 시설(유원지, 놀이공원, 동물원, 테마파크 등) 때문에 주일이 되면 아이들이 교회보다는 다른 흥미로운 곳으로 빠져나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겨 두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일본교회는 주일학교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던 초대교회처럼 언젠가 일본교회도 성령님의 역사로 다시 일어서는 때가 있으리라 봅니다. 바로 그 때 주일학교의 부흥이 큰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일본기독교개혁파교회 50주년선언-「전도의 선언」(8번째, 마지막회)

지난해(10월, 12월)와 올해 2월~6월까지의 선교편지에 이어서 이번 선교편지에서도 특히 50주년 기념선언(1996년 5월) 중의 하나인 「전도의 선언」의 마지막 부분을 번역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전도의 선언은 척박한 일본 땅에서 일본기독교개혁파교회의 전도론이기도 합니다. 열매없는 무화과나무(눅 13:6~9)처럼 보이지만, 일본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힘쓰는 일본기독교개혁파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주 (主) 의 1996 년 5 월 3 일

일본기독교개혁파교회 창립 50 주년기념 임시대회

일본전도의 시점 (視点)

15. 전도에 있어서의 협력

교회는 현재 많은 교파로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그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입니다. 이 하나의 공교회를 구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부과된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 임무는 제교회가 서로 복음의 교리에 있어서 신앙의 일치를 열심히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함께 복음선교에 봉사하는 가운데서 완수되어 갑니다. 그것은 특히 같은 신앙과 전통을 공유하는 제교회와의 교제와 협력에 있어서 구체화되어 갑니다.

현대사회의 다양화와 국제화, 그것에 동반하는 전도의 과제의 다면화 때문에 제교회 및 그리스도교의 제단체는 전도의 촉진을 목표로 하고 가능한한 서로 일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성경번역과 반포사업의 지원, 문서사업의 촉진, 매스미디어의 활용, 기독교주의 (主義) 일반교육과의 협력, 복지사업의 추진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협력의 태세를 만들어 예의 (銳意) 계획합니다.

16. 세계전도의 봉사

우리 교회는 일찍부터 신앙을 같이 하는 외국 미션의 귀중한 사역에 의해 전도와 교회형성에 있어서 큰 도움과 유익을 받아 왔습니다. 그것에 격려받아서 현재 우리 교회로부터도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세계의 개혁파·장로파 제교회와 좋은 교제를 유지하고 서로 선교협력의 촉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교육이나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은사와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파송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이나 통신수단이 두드러지게 발달되고 국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전도의 장이 크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역이 더욱더 번성되고 세계전도의 전진에 공헌할 것을 기대하고 그 소명에 응답해 갑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의 제교회와 함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 말씀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여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복음을 전세계에 전파합니다.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되신 하나님이여 우리는 지금 당신 앞에서 「전도의 선언」 을 표명하고 복음선교를 향한 주의 소명에 새롭게 헌신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촉복하시고 이 선언에서 표명한 것을 충분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의 풍성한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전세계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대망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주 (主) 의 1996 년 5 월 3 일

일본기독교개혁파교회 창립 50 주년기념임시대회

』

몇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중보기도는 선교사의 힘의 원동력입니다.

1.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교회의 세 가지 사명, 즉 교육과 전도와 봉사의 사명을 조화롭게 잘 강당하는 카츠타다이 교회가 되게 하소서(마 4:23;9:35)
2. 연로하신 성도들이 존경을 받으며, 주일학교 자녀들(초등-3명, 중등-3명, 고등-1명)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소서

3. 유아세례자가 입교를 하며, 새신자가 세례를 받게 하소서. 그리고 새롭게 교회에 온 4 명의 젊은이들이 잘 정착하게 하소서
4. 주은/주향:
주은-공부하는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주향-교회에서 간사로서의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소서
5. 후원금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채워지게 하소서
6. 카츠타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섬기며, 열매맺는 우리 부부되게 하소서

2022년 7월 1일(금)

일본 카츠타다이(勝田台)에서
김기태/김혜금(주은, 주향) 드림